

정재현 “SKT 송두리째 바꿀 것”… AI 네이티브 전략 발표

통합전산시스템, 조 단위 대규모 투자
네트워크 운영, 사람 중심에서 탈피
1GW 이상 초거대 데이터센터 구축

“SK텔레콤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송두리째 바꿀 겁니다. 이동통신사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비용을 들이더라도 기업을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1일(현지 시간) ‘MWC(모바일월드포럼)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박한 심경이 담긴 ‘AI 네이티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 CEO는 AI가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골든타임에 직면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기업의 체질 자체를 AI로 재설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CEO는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AI 시대는 기업에 위기”라며 “비용이 엄청나



정재현 SKT CEO는 1일(현지 시간)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AI 인프라의 재편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포함한 ‘AI 네이티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SKT

게 들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SKT는 영업전산, 회선관리, 과금시스템 등 기존 모든 통합전산시스템을 AI에 최적화된 설계로 완전히 개편하는 데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특히 보안 측면에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제로 트러

스트(Zero Trust) 철학을 모든 시스템에 이식한다. 네트워크 운영 역시 사람 중심에서 탈피해 ‘자율 운영 네트워크’로 전환한다. 기지국과 스마트폰 사이의 무선환경을 스스로 학습하는 AI-RAN 기술을 통해 초저지연 통신을 구현하고,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6G 기반 AI 네트워크 고도화를 주

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SKT는 대한민국 전역에 1GW 이상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를 구축해 아시아 최대 AI DC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정 CEO는 “AIDC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심장’, 초거대 LLM은 ‘두뇌’로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요 확보를 전제로 내세웠다. 정 CEO는 “1GW 구축에 최대 100조 원이 들 수도 있지만, 오픈AI나 AWS 등 확실한 수요처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5190억 개 규모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1조 파라미터급 이상으로 끌어올려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동남아 등 소버린 AI가 필요한 국가에 수출하는 모델로 키울 방침이다.

내부 문화와 고객 접점에서의 변화도 과격적이다. SKT는 모든 임직원이 최소 하나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업무에

활용하는 ‘1인 1 AI’ 제도를 추진한다. 정 CEO는 “AX(AI 전환)는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니라, 안 하면 망한다는 위기감 속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 서비스에서는 ‘에이닷 전화’를 단순 통화 기록을 넘어 일정 관리와 실제 행동까지 수행하는 비서로 진화시킨다. 요금제와 멤버십 또한 AI가 고객의 일상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패키지를 제안하는 초개인화 구조로 재설계된다.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 중인 ‘제조 특화 AI 솔루션’을 통해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제시했다.

정 CEO는 “법고창신(法古創新,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의 자세로 SKT를 AI 시대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MWC26서 ‘1위 AI 원팀’ 기술 로드맵 공개

‘K-엑사원’과 초대형 인프라 구축
비전언어 모델 ‘엑사원 4.5’ 관심

LG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26’ 개막을 앞두고 ‘1위 AI 원팀 LG’의 기술 로드맵을 전격 공개하며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LG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개막을 하루 앞둔 1일(현지 시간) 간담회를 열고 ‘1위 AI 원팀 LG’의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과 이상엽 LG유플러스 CTO가 참석해 국가대표급 AI 모델인 ‘K-엑사원(EXAONE)’과 이를 뒷받침할 초대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임우형 공동 연구원장은 LG가 추구하는 AI의 본질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임 원장은 “LG가 지향하는 AI는 지능의 높이 경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삶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라며 “AI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무엇을 만들지가 핵심이며, AX의 단계를 넘어 현실의 물리적 공간인 실세계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AI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LG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리더십 확보, 전문가 AI 지향, 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적용 확대, 지속 가능한 AI를 위한 신뢰와 안전 확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엑사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대를 모으는 대목은 조만간 공개될 비전언어모델(VLM)인 ‘엑사원 4.5’다. 이는 언어와 시각 정보를 인간처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멀티모달 기술로 향후 한국형 휴머노이드인 ‘케이팩스(KAPEX)’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도화된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원팀 LG’ 전략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실세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인프라와



1일 오전(현지시간) 모바일월드포럼(MWC) 2026 행사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인사이드 바이 멜리아 바르셀로나 아폴로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최고기술책임자, 왼쪽)와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이 참석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연결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내년 준공 예정인 경기도 과주의 AI 데이터센터(AIDC)를 소개했다.

과주 AIDC는 수도권 최대 규모인 200MW급 수전 용량을 갖추고 GPU를 최대 12만 장까지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시설로,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 CNS 등 계열사의 핵심 역량이 집결되는 장소가 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단순히 모델의 성능

을 높이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진화하는 ‘에이전틱 AI’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 CTO는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일 추론을 넘어 계획과 실행, 평가와 수정이 반복되는 순환 고리를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에이전틱 아키텍처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서현 기자

KT ‘에이전틱 패브릭’, 기업형 AI 공략

5개 레이어 기반 아키텍처로 구성

KT가 ‘MWC26’에서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AX 구현을 위한 기업형 AI 운영체제 ‘에이전틱 패브릭’을 공개하고 기업용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에이전틱 패브릭은 5개 레이어 기반 아키텍처로 구성된다. ▲개발부터 운영까지 단일 사용자경험(UX)으로 에이전트를 생성·관리하는 경험 레이어 ▲추론과 규칙 기반 실행을 담당하는 인텔리전스 레이어 ▲기업의 도메인 지식과 업

무경험을 축적하는 컨텍스트 레이어 ▲내·외부 시스템과 도구를 연결하는 실행 레이어 ▲보안·정책·비용·감사를 관리하는 거버넌스 레이어로 나뉜다.

이후에는 각각 경험 레이어, 인텔리전스 레이어, 컨텍스트 레이어, 실행 레이어, 거버넌스 레이어로 표기한다.

또한 관리·통제 영역인 컨트롤 플레인과 실행 영역인 런타임 플레인을 분리해 핵심 데이터는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모델은 유연하게 확장할 수도도록 설계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

축형(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IT 환경과 규제 조건도 지원한다.

KT 부스내 AX 플랫폼 존에서는 에이전틱 패브릭의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한다.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오케스트레이터가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진단·분석·최적화 등 역할별 전문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구현한다.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위 과업으로 분해해 각 에이전트에 할당한 뒤, 결과를 종합·검증해 최종 산출물까지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네트워크 품질 저하가 감지되면 오케스트레이터가 관련 에이전트에 업무를 분담하고, 분석과 조치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대응 이력은 이후 유사 상황 대응에 활용된다.

AI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KRAI 평가’도 함께 시연한다. 전용 에이전트가 평가 계획 수립, 레드팀 테스트, 심층 분석, 리포트 생성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KT는 통신, 재무, 자산, 인사(HR) 등 내부 핵심 업무에 에이전틱 패브릭을 적용해 성능과 실행력을 검증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LG CNS

AI·로보틱스 인재 세 자릿수 채용

LG CNS가 올해 상반기 세 자릿수 규모의 경력직 채용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미래 핵심 사업 분야 전문가 확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AI, 로보틱스, 글로벌 금융, 컨설팅, 데이터센터, 기업자원관리(ERP), 스마트팩토리 등 주요 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분야와 관련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전공과 연차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AI 직무는 고객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를 설계·구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AX 인재는 금융, 공공, 제조, 제약·바이오 등 산업별 특화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개발하며 현장 적용 경험을 쌓게 된다.

공공분야에서는 한국은행과 함께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화폐 자동결제 시스템을 실증했으며, 외교부 지능형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사업도 수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NH농협은행 생생형 인공지능 플랫폼, 미래에셋생명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종근당 제품 품질평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케이-에이아이 신약개발 플랫폼 사업도 수행했다.

로보틱스 직무는 물류·제조 현장의 로봇 기반 자동화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로봇이 산업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 운영·관제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로봇전환(RX) 사업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 확보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AI·로보틱스 연구개발센터에서 차세대 로봇 선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 퓨처 로보틱스 랩을 통해 현장 적용 중심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